

□ 세입은 대외경기 불안정 속에도 2011년과 비슷한 4%대 성장과 소비·투자 등 내수경기 호전에 따라 세수는 증가할 전망, 다만 부동산 경기 회복이 불투명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

- 지방세 중 지방소비세는 소비회복, 소득향상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, 취득세의 경우 경기불투명으로 여건 불확실
- 지방교부세는 경기활성화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다소 증가예상
- 국고보조금은 시행성과가 낮은사업 및 유사·중복사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감소요인과 사회복지사업 확충 등 확대요인 공존(서민희망·녹색성장분야는 증가)

□ 세출은 서민희망, 다문화, 주거·교육 등 사회복지분야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의 지속적인 증가와 일자리 창출, 신청사 건립, 관광공사인수 등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

- 경북의 강·산·해를 활용한 녹색성장축 마련 등 문화관광자원화, 新성장동력산업 발굴, FTA대응 농업경쟁력강화, 지역 SOC투자를 통한 균형개발 등으로 재정수요 지속 증가
- 특히, 도청이전 본격화, 관광공사인수, 복지예산, 재해예방 등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

※ 2012년도는 신규 시책발굴 등 지속적인 국비확보 노력결과로 도 재정규모가 사상 첫 6조원대로 진입

□ 따라서, 2012년도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·안정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도청이전, 일자리 창출, 미래신성장동력산업 등 도정역점시책에 집중투자

☐ 일자리 창출과 미래 신성장동력산업 육성

-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일자리, 청년창업·인턴사업지원 확대, 사회적기업 육성
- 신성장동력 R&D·인프라 구축, 지방투자기업 보조금 지원확대 등

☐ 구석 구석 돈되는 경북관광 집중 투자

- 경북의 江·山·海와 정체성이 반영된 다양한 문화콘텐츠 개발 지원
- 관광산업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기반강화 등

☐ 서민이 대접받는 따뜻한 경북복지 구현

- 서민·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 및 일자리 확충
- 저출산, 다문화, 고령화 등 사회환경변화에 선제적 대응 투자 등

☐ FTA 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

- 농업생산기반 구조개선 및 농가경영 안정 지원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
- 유통구조개선 및 수출지원 확대로 돈버는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등

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SOC사업 지속 확충

-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청이전, 도로망 등 SOC 확충
- 재해위험지구 정비, 수해상습지개선 등 자연재난대비 투자 등